

한국인 폐경기 여성에서 골흡수 억제제별 치료이행도와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내분비연구소²

*김경민¹ · 홍수정¹ · 최한석^{1, 2} · 김세화^{1, 2} · 이유미^{1, 2} · 이은직^{1, 2} · 임승길^{1, 2}

배경 :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률, 이환율 상승 및 추가적인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한다. 그러나 골다공증 환자들은 약에 대한 치료이행도가 낮아 골다공증 제제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각 골흡수 억제제별 환자들의 치료이행도 차이와 골전환 인자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이중에너지지방산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하여 요추, 대퇴경부, 총대퇴부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T점수가 한 부위에서라도 -2.5이하로 측정된 폐경기 여성 중 골흡수 억제제 투약을 시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 간격으로 골전환 인자들을 측정하였다. **결과 :** 총 262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주1회 Alendronate 70mg을 투여한 경우(1군), 주1회 Risedronate 35mg을 투여한 경우(2군), 매일 Alendronate 5mg/Calcitriol 5mcg 복합제제를 투여한 경우(3군)와 매일 Raloxifene 60mg을 투여한 경우(4군)의 네 군을 조사하였다. 각 군의 평균연령, 요추부, 대퇴경부 및 총대퇴부 골밀도, 오스테오칼신 등의 기초 임상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첫 1년 투약을 유지했던 군은 전체 환자의 84%였고, 2년까지 투약을 유지한 군은 74%, 3년까지 유지한 경우는 63%, 4년까지 유지한 군은 13%로 나타났다. 복용방법별 지속도는 주 1회 투약군인 1군과 2군의 경우 각 년의 지속도가 90%, 82%, 71%, 16%, 매일 투약군인 3,4군의 경우 78%, 65%, 53%, 6%로 매일 투약군이 주1회 투약군에 비해 약물 투약의 지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5). 그러나 순응도의 경우 약제군별 차이는 없었다. 골전환 인자로서 오스테오칼신은 치료 시작 시점에 비해 투약 1년 후 -20.8%, 2년 후 -28.9%, 3년 후 -31.9%, 4년 후 -40.7%로 현저한 감소경향을 보였으며 각 약제군별 감소도는 약제 복용의 지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 약제의 종류에 무관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전체적인 지속도가 높지 않았으나 매일 투약하는 군에 비해서는 주 1회 투약하는 군이 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약제 복용을 지속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약제별 순응도의 차이가 없었고 약물 지속에 따른 골전환 인자의 감소도 약제군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Rifampicin사용후 발생한 부신기능저하증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미 · 이성수 · 최현숙 · 이육현 · 김성래 · 유순집 · 강성구

부신 기능 저하의 많은 원인 으로 자가면역성 addison씨 병과 결핵성 부신질환 등이알려져 있다. 부신 결핵의 경우, 명백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측 부신 피질의 80-90%이상 이 손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핵균의 부신에 대한 직접적인 감염 없이도 리팜피신의 사용으로 부신기능 저하는 유도 될 수 있어서 부신피질 결핵 환자에서 리팜피신 사용후 adrenal crisis에 빠진 예도 보고된 바 있다. 리팜피신은 간내미세소체 효소의 강력한 유도체로 부신피질 호르몬 대사를 촉진시킨다. 리팜피신에 의한 adrenal crisis 중 많은 예가 리팜피신 투여 2주째 발생하였고 그 시기는 microsomal enzyme induction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본 저자들은 부신에 직접 결핵 감염 없이 리팜피신으로 부신 기능 저하가 유도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3세 여자 환자가 발열과 기침을 주소로 호흡기내과 입원 후 폐결핵 의심하여 항결핵약제(INH 300mg, RFP 600mg, EM 800mg, PZA 1g)를 시작(2007/5/13)한 후 지속적인 오심과 구토증상 있어 소화기 내과 전과 후 경과 관찰하며 시행한 검사 결과cortisol 18.7ug/dL, ACTH 120.6pg/mL,urine cortisol 44.71ug/day였다. 확인을 위해 시행한 재 검사에서 cortisol 3.52ug/dL (pm11) 15.62ug/dL (am8),ACTH 11.04 pg/mL (pm11) 30.59 pg/mL (am8)였고 cosyntropin 250ug투여후 시행한 급속 ACTH 자극검사 결과cortisol은 9.91ug/dL까지만 상승하여 부신기능 저하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부신에서 특이 소견 관찰 할 수 없었다. 상기 환자의 경우 폐결핵 감염으로 인한 간접 영향으로 부신기능 저하증이 유발된 것인지 리팜피신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감별되지 않았기에 우선 폐결핵 치료 약제 중 리팜피신을 제외하고 추적관찰하며 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